

‘경계 없는 세상’ 장애·비장애 예술로 하나 되다 CULTURE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亞문화전당,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전 6월 29일까지
‘배리어 프리’ 전시 장르 구축…무장애·장애 등 작가 5인 참여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배리어 프리’ 전시가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2025 ACC 접근성 강화 주제전-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를 지난 17일 개막, 오는 6월 29일까지 복합전시6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사장 방귀희)과 협력해 마련했다.

특히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무장애)를 보조수단이나 장치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구축한 선제적인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 제목인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는 전시 참여 작가이자 규범과 예술, 장애가 있는 몸의 관계를 성찰하는 김원영 작가의 책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2024)에서 발췌한 문구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뜻을 담은 제목으로, 예술을 통해 ‘경계 넘기’를 시도한다.

전시는 무장애, 장애, 참여, 상호작용 예술을 연구해 온 국내외 5인(팀) 작가들의 신작과 대표작품으로 구성된다. 먼저 엄정순 작가는 예술가로서 ‘본다는 것은 뭘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지난 1997년부터 ‘우리들의 눈’을 설립, 시각장애 학생들과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엄정순 작 ‘코 없는 코끼리 no.2’.

이번 전시에서는 ‘코 없는 코끼리 no.2’와 드로잉 작품을 통해 600여년 전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의 이주 서사가 담고 있는 혐오, 분리,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눈과 귀의 근본적인 관계와 언어에 관심을 두고 신작 ‘폐도’(토토포노로지 #4)를 통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대응, 지각적 다양성을 부각한다.

송예슬 작가는 과학기술과 상호작용을 재료로 관람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감각적 경험을 토대 삼아 예술과 참여자의 관계를 다시 정의한다.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

이번 전시에는 대표 작품 ‘보이지 않는 조각들: 공기조각’과 신작 ‘아슬아슬’을 선보여 시각 중심의 기존 예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비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또 아야 모모세는 몸의 문제를 탐구하며 의사소통 불균형, 타인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격차를 탐구하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소셜 댄스’와 참여형 퍼포먼스 작품인 ‘녹는점’이 관객과 만난다. ‘소셜 댄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센터와 협력해 시각언어인 수어를 음성해설로 구현했다.

세일러문 목소리로 알려진 최택희 성우, 구지원 성우, 서수연 음성해설 작가가 참여해 몰입도를 높였다. ‘녹는점’은 커피바와 유사한 공간에서 퍼포머가 관람객에게 직접 작가의 온도와 동일한 물을 제공하는 퍼포먼스로, 타인의 신체를 느껴보는 이질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생수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자연드림의 협찬을 받아 작품을 진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원영·손나예·여혜진·이지양·하은빈 작가의 작품 ‘안녕히 영키기’는 지난 2월 24~26일 ACC 복합전시6관, 예술극장 등에서 펼쳐진 동명

의 워크숍을 전시로 확장한 작품이다.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특성의 몸과 마음을 가진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 움직임, 글쓰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ACC는 오는 24일~26일 광주지역의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를 모집해 이러한 워크숍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작품 외에도 공간, 프로그램, 인력 배치 등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장애는 어린이 및 시각장애인 참여자를 위해 벽면에 촉각바를 설치해 전시의 동선을 안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기관을 촉각타일로 제작했다.

전시 공간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촉지도, 동화 형식으로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홍보물과 점자책, 게임 방식의 오디오 가이드, 어린이 참여자를 위한 상설 교육재, 쉬운 음성해설 등을 전시장에 마련했으며, 접근성 매니저가 상시 근무해 전시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이밖에 ACC는 장문원과 이번 전시 및 공연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 전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ACC에서 진행 후 오는 7월 23일~8월 22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장문원에서 국내 첫 장애인예술인 표준전시장인 모두 미술공간으로 순회될 예정이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융·복합 창·제작 기관인 ACC가 ‘배리어 프리’를 전시 장르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유형별 향유 접근성 외에도 장애인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은 물론 모든 관람객이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문화접근성을 더욱 확대 및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무등산’ 사계…수묵으로 만난 대자연의 숨결

광주소암미술관은 수묵으로 조망된 무등산 그림들을 접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이 전시는 소암미술관의 울돌이 첫 전시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오랜 준비를 하느라 다소 시간이 소요된 이번 전시는 지난 17일 개막, 오는 5월 18일까지 미술관 제1, 제2전시실에서 ‘무등산 사계-수묵으로 피어나는 대자연의 숨결’이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출품작은 수묵 20여점.

특히 이번 전시는 20대에 남종화의 대가 남농 선생으로부터 전통 남종화풍을 사한 뒤 40여년의 외길 화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인으로 불리는 한국화가 금당 김용준이 무등산을 바라보며 화업을 이어오게 된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도심 가까이에 자리한 유네스코가 인정 한 세계의 보고이자 문화유산인 무등산의 모습을 심도있게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다.

만물이 소생하는 을사년 곡우에 즈음해 광주, 담양, 화순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무등산은 서석대와 입석대, 광석대 등 주상절리를 포함한 기암괴석들이 태고의 시간으로부터 다양한 동물과 식물, 사찰과 누정, 문화재 등 무등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까지 변화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며 견디어온 긴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무등산 만추’

광주사람들에게는 어머니산으로 통한다. 역사의 질곡마다 그 자리에서 광주를 지켜봤고, 광주 정신의 출발점으로 바라본다.

이런 무등산이 갖는 의미를 존중하고 있기에 이번 전시가 열릴 수 있었다.

예로부터 광주·전남을 예향, 의향, 미향 등 삼향(三鄕)이라고 하듯이 이 지역 사람들은 평소 예술을 사랑해 1인(人) 1기(技)는 물론이거니와 의로운 일에는 함께 힘을 합쳤으며, 육지와 바다가

인접해 산해진미의 먹거리도 또한 풍부한 지역의 정경이었다.

정(情)과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인심 좋은 고장이었고, 자연스럽게 시대별로 이름 높은 시인 묵객들도 많이 배출돼 시·서·화가 풍성하게 꽃을 피웠다.

이와함께 조선 말기 시·서·화·인(印)의 대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제자 소치 허련(1809~1892)으로부터 시작된 진도 윤관산방의



‘무등산 전설’

남종화는 미산 허형, 의재 허백련, 남농 허견에 이르기까지 한국 남종화의 맥을 이어 왔다.

이런 미술사적 사실을 상기하는 자리가 될 이번 전시는 금당 김용준 화가가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투박하고 과묵있는 수묵의 붓놀림을 통해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무등산 대자연의 숨결을 망라, 사계절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만큼 무등산의 또 다른 매력에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영화 ‘배이비!’ 스틸컷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예은 감독 영화 ‘배이비!’ 초청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광주영화학교 출신인 이예은 감독의 ‘배이비!’가 공식 초청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예은 감독은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를 졸업하고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하는 제1기 광주영화학교 단편영화제작워크숍을 통해 처음 영화 제작에 입문, 광주의 차세대 영화감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대주다.

‘배이비!’는 2023년 광주영화학교 워크숍 작품인 ‘ZIP’에 이은 그의 두번째 작품으로 광주독립영화제 고릴라펀드 지원작으로 선정돼 2024년 제작한 작품이다. 히키코모리인 주인공이 세상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섬세한 심리묘사를 끌어내는 탄탄한 서사와 독특한 영물로 담아낸 단편영화의 묘미를 한껏 살렸다.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경쟁 부문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이 자동으로 미국 아카데미영화제 단편에 초청되는 오스카 인증 영화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과 아트시네마 모뎀극장에서 열리는 42회 행사에는 121개국 5350편이 출품된 가운데 이예은 감독의 ‘배이비!’는 한국경쟁 부문 20편 중 한편에 오르는 패기를 이뤘다.

이상훈 이사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광주영화학교의 성과와 동시에 광주에서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다”며 “광주영화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많은 애정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2018년부터 시작한 광주영화학교는 영화관련 학과가 없는 열악한 광주에서 영화제작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해 영화제작과 영화기획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5월 중 개강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김혜자의 사후세계 로맨스
‘천국보다 아름다운’ 5.8% 출발

배우 김혜자를 중심으로 로맨스와 코미디, 힐링 등 다양한 장르를 함께 버무려 낸 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 방송한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첫 화 시청률은 5.8%로 집계됐다. 1화에서는 시장 바닥에서 못된 일수꾼으로 통하지만, 집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내인 이해숙(김혜자 분)의 이중생활을 보여줬다.

해숙은 생전에 ‘지금이 가장 예쁘다’고 한 남편의 말을 기억하고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을 찾았지만, 남편 낙준(손석구)은 30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둘의 황당한 재회로 첫 화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고재중 시인 등단 40주년 시선집 출판회

25일 6시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

생태학적 가치와 인간 존재의 궁극을 탐구해온 고재중 시인의 등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시선집 ‘혼자 넘는 시간’(문학들 刊)에 대한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6시 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본보 4월 3일 11면〉

그동안 발간한 10권의 시집에서 150편을 엄선해 엮은 이번 시선집에는 농촌 현실과 생태학적 가치, 인간 존재의 근원을 궁구해온 시인의 시 세계가 면면한 강물처럼 반짝인다는 평이다.

신철규 시인은 저자의 삶과 문학을 ‘빛의 연

못을 가로지르는 고독한 산책자’로 압축했고, 최진석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의 시 세계를 “고독한 길녘의 시학”으로 설명했다.

출판기념회는 이날 오후 6시에 저자사인회가 진행되고, 6시 30분에 분행사가 이뤄진다.

고재중시선집출판기념회 추진위원회가 임시적으로 꾸려진 가운데 회장에 김경윤, 위원에 정양주 김호균 김미승 송광룡 시인이 각각 맡았다. 광주·전남작가회의와 비타포럼, 문학들이 후원한다.

고재중 시인은 1957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1984년 실천문학 신작시집 ‘시여 무기여’에



‘동구박집 열두식구’ 등 7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10권의 시집을 비롯해 시론집과 산문집 등 다수를 펴냈다.

농촌의 사실적인 풍경을 직

접 농사를 지은 사람의 생생한 육성으로 담아내 ‘농민시인’으로 통한다.

신동엽문학상과 시와시학상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상, 흙의문예상, 영랑시문학상, 송수권시문학상, 조태일문학상, 송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